

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6> 부처님의 마음을 전한 것이 선(禪)

부처님의 세상이요 깨달음에 해당하는 '그 무엇'에 대해서는 부처님이나 조사스님도 어떻게 설명할 도리가 없다고 하였다. 공부하는 사람이 직접 체험을 통하여 바로 알고 깨쳐야만 하니 이것을 선(禪)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원을 <선가귀감> 5장에서는 말한다.

世尊 三處傳心者 爲禪旨
세존이 세 곳에서 마음을 전했다는 것이 선(禪)의 근본 뜻이 되었다.

여기서 '세존(世尊)'은 '세상에서 존경 받을만한 분'이라는 뜻으로서, 부처님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다. 세존이 가섭에게 '세 곳에서 마음을 전했다는 것'은 어떤 말이나 설명이 필요없이 부처님의 마음과 가섭의 마음이 통하여 이심전심(以心傳心)으로 가섭의 공부 부를 인가했다는 것이다. 가섭이 부처님께 마음으로 법을 전해 받은 것, 이것이 선종의 시작이 되었다.

다자탑전 분반좌
어느 날 부처님께서 중인도 비사리성(毗舍離城) 서쪽에 있는 다자탑 앞에서 많은 대중들에게 설법을 하고 있을 때였다. 설법이 중간쯤 진행될 때 차림이 허름한 가섭이 먼 길에서 돌아와 뒤늦게 모습을 드러내자 대중들은 그를 별로 답답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때 부처님께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어서 오라! 가섭이여" 하며 당신이 앉던 자리 절반을 내주고 가섭을 당신 옆에 앉게 하였다.

이때 부처님께서 앉은 자리 절반을 가섭에게 내준 일을 선가에서는 부처님이 가섭의 공부를 인정한 것으로 본다. 부처님이

당신의 법을 가섭에게 전했다는 뜻이다. 이 내용을 '다자탑 앞에서 자리를 절반 나누어 앉았다'고 하여 '다자탑전(多子塔前) 분반좌(分半座)'라고 한다.

염화미소
부처님이 영취산(靈鷲山)에서 법회를 보고 있을 때 일어난 일이다. 영취산은 중인도 마갈타국 왕사성 동북쪽에 있는 유명한 불교 성지로 알려져 있다.

산 모습이 독수리처럼 생긴데다가 실제로 독수리도 많이 살고 있어서 불게 된 이

'세존' 세상에서 존경 받을만한 분 의미 삼처전심(三處傳心)은 선종의 근본 뜻

름인데 '영산(靈山)'이라고도 한다.

이 영취산에서 법회를 보고 있을 때 하늘에서는 꽃비가 내리고 있었다. 부처님께 서는 법회 중간에 허공에서 떨어지는 꽃 한 송이를 갑자기 집어 들고 대중에게 보였었다. 모든 대중들은 느닷없이 일어난 부처님의 이런 행동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 어리둥절해 했다. 그 대중 가운데 오직 가섭만이 부처님의 뜻을 알아채고는 빙그레 웃었다. 이때 부처님께서 "나에게 정법안장(正法眼藏), 열반묘심(涅槃妙心), 실상무상(實相無相), 미묘법문(微妙法門), 불립문자(不立文字), 교외별전(教外別傳)이 있는데 모든 것을 가섭에게 전하겠노라" 말씀하셨다. 이 내용을 '영취산 법회에서 꽃을 집어 들어 보였었다'는 '영산회상(靈山會上) 거역화(擧拈花)'라고 한다. 뒷날 부처님이 꽃을 들어 대중에게 보인 이 일을 두고 '염화시중(拈花示衆)'이라 말하기도 한

다. 또 꽃을 드니 가섭이 빙그레 웃었다고 하여 '염화미소(拈花微笑)'라고도 한다.

곽시쌍부
쿠시나가라에서 부처님이 열반하셨을 때 제자들은 사라스나무가 마주 서 있는 자리에 관을 모셔 두었다. 열반하신 뒤 절일이 지나서야 멀리 떨어져 있던 가섭이 뒤늦게 도착하였다. 슬픔을 억누르며 가섭이 지극히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처님의 공덕을 정성껏 찬탄하자 부처님께서 관 밖으로 두 발을 내보이셨다.

뒷날 관 밖으로 두 발을 내보인 이 일을 '쌍수하관(雙樹下觀) 시쌍부(示雙趺)'라고 하여, 선종에서는 부처님이 가섭에게 법을 전했다는 징표로 삼았다. '쌍수(雙樹)'는 나무가 마주 서 있는 것을 말하고, '곽(樹)'은 부처님을 모신 관을 말하며, '쌍부(雙趺)'는 부처님의 두 발을 뜻한다. 이 내용을 보통 곽시쌍부(擧示雙趺)라고 줄여 말한다.

선종에서는 세 곳에서 마음을 전했다는 이 '삼처전심(三處傳心)'을 들어 부처님의 법이 가섭에게 전해졌다고 이야기 한다.

그 법이 28대 말마대 사까지 내려와 중국의 혜가 스님에게 전해지고, 육조 혜능 스님 때에 꽃이 활짝 피어서 한국에까지 전해져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내려온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처님의 세상이요 깨달음은 근본 자리에서 부처님이나 조사스님도 어떻게 설명할 도리가 없다고 했다.

이 '삼처전심' 또한 근본을 알고 보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지나지 않는다. 가섭에게 법을 전했다는 이야기는 북본(北本) <열반경>에도 실려 있다.

佛告諸比丘 有無上正法 淨妙難及 迦葉 當爲諸比丘之大依止 猶如來爲諸眾生之依止處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에게 '높고도 높은 바른 법'이 있는데 가섭에게 이 법을 전하겠노라. 여래가 모든 중생들의 의지처가 되는 것처럼 가섭은 모든 비구들의 의지처가 되리라."

■원승 스님(송광사 인월암)

한입에 소옥~ 불교 상식

원주, 별좌, 도감스님은 무엇하는 분?

절집에는 소인이 의외로 많습니다. 대중들이 모여 살다보니 제각각 맡은 일이 제법 됩니다. 그 가운데 절 살림살이를 관장하는 원주(院主), 별좌(別座), 도감(都監) 등이 있습니다. 흔히 절에서 허투름을 머물러면, 원주스님을 찾아 허락을 받지요? 왜 그럴까요? 원주는 절에 살고 있는 대중들의 숫자를 파악해 소요되는 식량과 반찬, 부식 등 필요한 모든 물자를 조달·관리

하는 일을 맡습니다. 또 한 해의 절 집 살림살이를 미리 계획해야 하니, 입출한 살림살이를 보아야 합니다. 본래 원주는 말 그대로 한 사찰을 총괄하는 주인으로서, 주지스님에 버금가는 상당한 책임을 갖고 있었지요. 그런데 후대로 내려오면서 그 역할이 축소돼 살림살이를 도맡는 소임으로 변했죠.

별좌스님은 원주 일을 도우면서 주로 음식을 만들고 배분하는 일을 맡습니다. 도감스님은 사찰의 금전출납과 회계, 농사일 등을 맡으며, 지금도 큰절에서는 농장, 토목공사 등 큰 일을 담당합니다. 별좌도 도감이든 그 역할에서만큼은 원주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81)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2부 27강 : 아부도천의 <금강경> 2장 송

오늘 <금강경> 아부송 2장을 읽는다. 본문을 따라 세 국조를 지었다.

1. 수보리가 "회유하십니까"하고 찬탄한 대목을 두고, 아부는 이렇게 읊고 있다.

如來不措一言，須菩提便與讚歎。具眼勝流，試著眼看。隔窗見角，便知是牛。隔山見煙，便知是火。獨坐巖巖，天上天下。南北東西，鑽龜打瓦。 ㄸ

"어래는 한 마디도 않았는데, 수보리가 나서서 탄성을 지르고 있다. 안목 갖춘 뛰어난 무리는 똑똑히 볼지이다. 담 너머 뿔이 보이면 소인 줄을 알고, 산 너머 연기가 일면 불이 난 줄 알아야지! 홀로 산 정상에 앉았노라니, 천상천하로다. 남북동서란 거북을 꿰고 기와를 두드리는 일인 즉, 쫓." 해설은 생략합니다. 그래도 한 마디씩만 보태자면 - '회유'라는 말에, "아하, 그거"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소리겠지.

2. 수보리가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어떻게 마음을 제어 항복시켜야겠습니까"라고 물는데 대해 아부는 이렇게 읊었다.

這一問從甚處出來。伴喜我不喜。君悲我

不悲。雁思飛塞北。燕憶舊巢歸。秋月春花無限意。箇中只許自家。

"이 질문은 대체 어디서 나왔누. 너는 기뻐도 나는 기쁘지 않고, 너는 슬퍼도 나는 슬프지 않다. 기러기는 변방의 북쪽으로 날아갈 생각을 하고, 제비는 제 옛집을 그리워한다. 가을달 봄의 꽃에 이는 무한한 정. 그건 다만 아는 사람만이 알 뿐이다." - 세상사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뜻집. 본래 자리를 향해 고개 돌린 삶. 그들은 눈빛 만으로도 서로를 알아본다.

3. 부처가 "내 이제 설해 줄 테니 들어라"하고, 수보리는 이에 대해 "그렇습니다. 듣고 싶습니다" 한 대목을 두고 아부는 이렇게 읊었다.

往事因叮囑生。七手八脚。神頭鬼面。棒打不開。刀割不斷。闊浮跼蹙。幾千廻。頭頭不離空王殿。

"왕왕 일은 부탁을 거절 못해서도 생긴다. 손은 일곱, 다리는 여덟 개에, 귀신 머리 와 도깨비 얼굴이라. 몽둥이로 때려도 깨지지 않고, 칼로 쳐도 잘리지 않는다. 인간세 뒤어넘기 맞천 번인가, 그대 봐도 결국은 공(空)의 궁전 안인 것을..."

- 부탁을 했으니, 무슨 말이든 해야겠

지...그러나, 그 소식을 불잡을 수 있을지는 장담 못하네.

아부의 스승도겸

인터넷 '붓다뉴스'에는 그동안 횡설수설한 내 <금강경 강의>가 열려 있다. 거기 '해경'이란 아이디를 쓰시는 분의 질문이 오래 올라 와 있다. 저번 아부의 <금강경 송> 1장을 몇 차례 소개해 준 적이 있는데, 아부라는 인물이 궁금했던 모양이다. 아는

해 무엇이든 해 주고 싶다. 그러나 나도 못 해주는 다섯 가지가 있다. 그게 무어나고 문자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

"웃입는 것, 밤 먹는 것, 똥 누는 것, 오줌 누는 것, 그리고 이 몸뚱이 풀고 다니는 일! 다섯 가지이다." 이 말에 충격을 받은 그는 춤을 명실명실 추었다고 한다. 그는 나중 불교에 '대해' 말하는 모든 것을 거짓이라 했고, 선의 기행과 파적 또한 지옥 같 속임 수라고 질타했다.

"그럼 어떻게?"라는 질문에 짐짓 이렇게 해 무엇이든 해 주고 싶다. 그러나 나도 못 해주는 다섯 가지가 있다. 그게 무어나고 문자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

"웃입는 것, 밤 먹는 것, 똥 누는 것, 오줌 누는 것, 그리고 이 몸뚱이 풀고 다니는 일! 다섯 가지이다." 이 말에 충격을 받은 그는 춤을 명실명실 추었다고 한다. 그는 나중 불교에 '대해' 말하는 모든 것을 거짓이라 했고, 선의 기행과 파적 또한 지옥 같 속임 수라고 질타했다.

"그럼 어떻게?"라는 질문에 짐짓 이렇게 해 무엇이든 해 주고 싶다. 그러나 나도 못 해주는 다섯 가지가 있다. 그게 무어나고 문자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

행복동 사람들

이봐, 한철이. 이제 그만 마시고 들어가게.

그~음! 아저씨, 저 하나도 안 추웠어요. 그런데 아저씨, 세상살이가 무슨 영혼아 같아요. 아주 재밌다고요.

이제 집에 가야지. 오늘 무슨 일 있었어?

관찮아요. (기)

하루하루 살기도 벅듯한데 돈 쓸 일은 자꾸 생기고... 아저씨, 저 가장승진도 미끄러졌어요. 사무실에선 은근히 왕따도 당하고요...

그럼? 그랬다면, 거침, 그 회사 사정보는 단 없는데, 저네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이 어딴다고.

내가 어디가 모자라서... 안 그래요?

그럼요? 아, 역시 절 알아봐주는 사람은 아저씨 뿐입니다.

자, 오늘은 이 아저씨가 도끼 이야기 할 거예요.

죽말마다 시간 쪼개서 봉사활동하지, 부처님 가르침 따르고 마음 닦는 일도 게으름없이 꾸준히 하고

우리 행복동에서 저네 한철이 성실한 거 모르면 사람 없지. 암.

공치 줄까?

그러니까요. 남들에게 크게 도움은 못되도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전 오해 이리 온이 없냐고요? 이럴텐데 화~ 죽고 싶어요.

타!!

이 사람, 죽다니? 못하는 소리가 없구만. 그래도 자넨 행복동이야. 사람으로 태어나 지난 날의 잘못을 베풀 기회라도 얻었잖아!

그 정도가 무슨 고생이 라고!

욕심이 근심을 만들지요. 주어진 삶에 충실하세요.

지금이 행복한 순간

배종훈 (bjh4372@hanmail.net)

절벽에서 손을 놓는 자가 대장부



만전을 피웠다. '힌 구름 다한 곳이 푸른 산인데, 저 길손, 또 다시 청산 밖에 있노라.'

아부, 오랑캐에서 진리의 귀족으로

위의 두 자료도 소략하기 이를 데 없다. 그에 의하면 아부는 군인이었다. 공수로 군 무했다 한다. 이 점이 예사롭지 않다. 출신

은 곤산의 적씨(狄氏)였고, 이름이 적삼(狄三)이었다. 모를 일이다. 여기 삼(三)은 대가 죽 집안의 세 번째 아들이라는 뜻이었을 것이다.

경덕(景德)의 도겸선사를 찾아가 법(法)을 묻자, 예의 그 조주 무자 화두를 들려주었다.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 알겠느냐?"

세벽부터 밤까지 직무도 보지 않고 화두를 안고 깡깡대는 것을 보다못한 상관이 화가 났어 곤장을 쳤는데, 불기찍을 맞는 순간에 적삼은 홀연히 깨졌다. 이에 도겸이

있기도 하다.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인문학 되지 않은 종족에 대한 경멸이 거기 담겨 있다. 그 오랑캐의 자식이 깨달음을 통해 진리(眞)의 자식이 된 것이다.

그가 남긴 작품은 이 <금강경> 송이 유일하다. <오동회원>에는 이 책이 건염(健炎) 초 1127년에 누군가의 요청에 의해 지어진 것이라고 적혀 있다. 그의 나머지 삶은 베일에 싸여있다. 그가 남긴 두어 수 시 가운데 이런 것이 있다.

群陰剝盡一陽生。草木園林盡發萌。唯有衲僧無底鉢。依前盛飯又盛羹。

"여러 음険들이 떨어져 나가고 양(陽)의 기운 하나가 생겼네. 초목과 원림이 우르르 싹이 돋네. (그 북새통에) 다만 남승에게 밀바닥 없는 그릇이 하나 있어, 여전히 밥을 담고 국도 담아 먹는다네."

백범 김구의 노래

<백범일지>에 아부의 노래가 실려 있다. "得樹攀枝未足奇, 懸崖撒手丈夫兒。水寒夜冷魚難覓, 留得空缸載月歸"는 유명한 구절이다. 나중 구절은 성종의 형인 원신대군이 시조로 풀이 더욱 유명해졌다. "추강(秋江)에 밤이 드니 물결이 차노매라. 낚시 드리 치니 고기 아니 무노매라. 무심(無心)한 달 빛만 싼고 빈 배 저어 오노라."

백범의 스승 고석보가 인용한 것은 그러나 처음 두 구절이다. "得樹攀枝未足奇, 懸崖撒手丈夫兒."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진정한 장부는 아득한 절벽에서 손을 놓는다."

■한국학중앙연구원